

## ■ 면허갱신 업무를

### 통해 본 회원의

### 이모 저모 ■

서울시지부 상부

김 영 숙



한 겨울동안 진통을 겪고 나서 분주했던 날들을 생각해 본다. 지난해 8월 16일은 의료법 개정령이 공포되었고 11월 9일부터 면허 갱신 업무가 시작되었다. 의료인 면허 갱신이란 제목부터가 어마어마한 것 같이 그 업무도 쉬운 일은 아니었다.

3개월이란 기간이 공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의 일처럼 보아 넘기던 회원들이 마지막 한달을 앞두고서야 서두르기 시작했다. 17명 남짓한 사무실이 좁아 복도까지 늘어서는 회원들이 날이 갈수록 장사진이었다.

땀을 뻘뻘 흘리며 서류를 접수 하는 직원들이나 차례를 기다리는 회원들이나 한결같이 마음이 분주했다.

다른 지부에서도 비슷한 애로가 있었겠지만 7,000여명의 많은 회원들을 가진 서울시 지부이고 보니 그 업무량은 더욱 가중했었다.

완비된 갱신서류가 접수되기까지 대다수의 회원들은 협회방문을 두번 이상 하게 되는가 하면 미비된 서류를 접수해 주지 않는다고 불평이 대단하여 담당 직원과 언성이 높아지기도 할 때는 송구스러울 때가 한 두번이 아니었다.

직무에 시달리는 담당직원들의 애로를 조금이라도 이해한다면 서로가 불쾌하지 않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일할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우리는 서로 듣고 협조할 줄 알아야 하겠으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할 의무를 다하고 권리를 주장해야 될 줄 안다.

그럼 몇몇 회원들의 이모저모를 살펴 보기로 하자. 그러니까 12월 중순경 백발이 성성한 회원이 면허갱신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왔다고 갱신서류를 내놓는데 나는 깜짝 놀랐다.

### 백발 성성한 회원의 퇴색된 면허증을 대할때

### 눈시울이 뜨겁기도

있을때 간호협회 총회시 기념촬영한 단체사진이 붙어 있지 않은가! 감격하여 쳐다보는 나에게 그 할머니께서는 내손을 꼭 잡고 “나는 취업은 하지 않고 있지만 늘 백의의 천사로서의 긍지를 가지고 산다”고 말씀하면서 오늘의 협회 발전에 감사한다고 눈물은 글썽하시어

나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짐을 느끼면서 두 어깨가 더 무거워 지는 것을 어찌하지 못하였는가 하면, 이 기쁨이 채가시기도 전에 칠판을 걷는 멧쟁이 회원이 거의 휴지에 가까운 면허증을 내놓으면서 “이까짓 면허증 쓰지도 않는데 공연히 험들게 왔다 갔다 하는가봐” 하는 못마땅한 푸념을 들었을 때는 너무도 상이한 두회원의 면허증에 대한 관념에 한동안 멍해져 있었다.

마감 이틀을 앞두고의 일이었다. 하루에 600명에 달하는 갱신회원이 쏟아져 나오니 장마당에 가까웠다. 또한 마감일이 며칠 지나서야 찾아온 어느회원은 매년 하던 회원등록을 작년에만 안했드니 이렇게 피해를 볼 줄은 몰랐다면서 금년 부터는 틀림없이 5월달에는 꼭 등록하러 오겠다고 다짐하기도 하여 작은 보람을 느끼기도 하였다.

이번 갱신을 계기로 하여 협회와 회원과의 유대가 더욱 두터워 졌으리라 믿는다. 그동안 물질양면으로 도와주신 지부장님을 비롯하여 여러 이 사님 그리고 각 기관장님들께 감사드리며 6,000여개의 서류를 무사히 접수 완료한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한다.

## ■ 면허갱신 업무를 통해 본 회원의

이모 저모 ■

부산지부 상무

임 순 자



나는 10여년간의 간호협회 업무를 보아 오던중 가장 분주했던 한 겨울을 보내고, 이제 성큼 다가선 봄의 미소에 잠깐 눈을 돌릴 수 있는 여유를 되찾은 듯 합니다.

1947년도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발부되기 시작한 간호원 면허증을 26년만에 재교부하는 엄청난 작업이 진행되어 부산지부만도 1,275명 회원들의 서류를 정확하게 실수 없이 접수 제출하느라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제 사

### 각계에 뻗친 우리의 손길을 한 눈에 본 것 같다

친이 부착된 새 면허증을 회원들에게 빠진 없이 전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급번 면허갱신 회원중 가장 앞에 면허번호를 가진 제17호의 김복석 회원은 부산진구 보건소에서 건강한 모습으로 후배들과 어울려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음 아팠던 일은 반백이 성성한 노장 간호원이 여러겹의 백지에 소중히 간직된 면허증을 교부코저 왔는데 62년도 정기신고 누락으로 취소된 면허여서 부득이 그냥 되돌아 가지게 한 일이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새삼 취업할 마음이 있어 교부코저 하는게 아님은 누구나 알 수 있는 일인데, 한평생 지냈던 면허증을 완전한 상태르 가지고 싶은 마음을 알면서도 도와드릴 수 없어 안타까운 심정이었습니다.

젊은 어머니 회원들이 마치고 친정 나들이 오는 모습으로 자녀분을 앞세우고 왔었는데, 비록 취업은 않고 있으나 자기의 면허증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들은 한결 같았으며, 미취업이라고 말하기에는 합당치 않을만큼 자기의 가정을 위하여 좋은 가정간호원으로, 그리고 자기가 속해 있는 이웃 지역사회를 위하여 쉬지 않고 간호사업의

일부를 담당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간호교육 과정에서 귀에 익혀 들어오던 사랑과 봉사의 생활 철학은 직장 생활을 하거나 또는 가정에 있더라도 모두들 주어진 여건 속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 모습은 믿음직 스러웠습니다.

73년도 졸업회원중 아직 미취업중인 간호원이 몇사람 있었는데 다른 학문보다 어렵게 배운 간호학을 그대로 묻어 두고 있는 현실정의 모순들이 안타까움을 지나 분노를 자아내게 했습니다. 행정당국의 선처만을 기다리기 보다는 간호원들의 취업분야 확보를 위하여 과감한 활동이 있어야 되겠으며 협회 실무자의 입장에서 막중한 책임을 느낍니다. 그리고 신출업생의 취업난도 겹쳐서 불안한 마음을 더욱 조급하게 합니다.

또한 62년도 정기신고와 더불어 회원 등록을 하고 가까운 몇년간 협회와 소식을 끊었던 대부분의 회원이 외국에 나가 있음을 알고 새삼 놀랐으며 이제 한국 간호원이 해외에서 민간의료 활동의 일익을 잘 감당하고 있다는데 대하여 전 회원들과 같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들의 권익과 복지를 위하여 활동을 도울 수 있는 기구를 세운다는 소식이 있음은 다행한 일이며 속한 시일 안에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70년대의 사회혼란이 아무리 심각하다 하더라도 전국에 2만여 간호원들이 지역사회 곳곳에서 맡은바 소임을 계속하고 있는한 전문직 간호사업의 전망은 밝게 빛날 것입니다.



## 해외채재 회원의 면허갱신 업무를 마치고

조금은 여유있는 氣分에서 지났음을 되돌아 본다. 별로 그렇지도 않은 것 같으면서 분주한 곳이 우리 協會다.

때마침 몰아닥친 면허갱신 업무로 한국을 떠나 해외로 진출한 많은 회원의 보호자 아니면 회원을 대신해 찾아온 인척관계의 어느 아저씨 아주머니 그리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또는 바다 건너 온 많은 우편물들을 대하면서 진통을 겪었던 지난 2개월을 회상해 본다.

申請書, 하나 달랑 오는 경우, 사진 따로 면허증 따로 신원증명서, 오적초본 따로 送金 따로 모두가 따로 오는 경우, 물론 전부는 아니나 적지 않은 量이 이러한 업무의 혼란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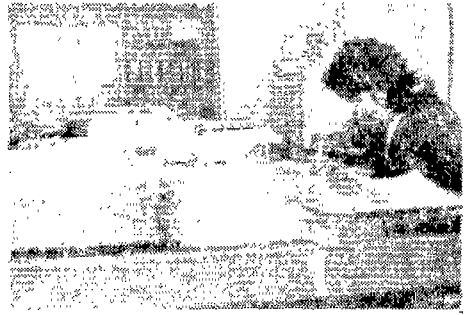
제한된 시간과 인원으로 우리 정신없이 일에 몰릴때면 어느새 밤 10시가 되곤 하였다. 웃을 수도 없고 짜증도 낼 수 없는 경우이기도 했다.

신청서에 써어진 두 개의 姓氏!

잘 모르는 자신을 먼저 맞아야겠지만 도시는 어느 것이 진짜인지 분간 할 수가 없는 것, 면허증도 없고, 이름도 英語로만 表記한 분이 있어 조금은 곤란했던 점들, 더더 적식을 찾는 우리 사고방식으로는 깨모지만한 작은 白紙에 적힌 健康진단서, 위임장이 대문짝 만한걸 보면 자유스럽다는 해외생활이 실감나기도 하였다. 마뻐한 큰 봉투가 작아 가위로 자르고 접고한 불편함.

생활은 환경에 적응하게 마련이지만 여기는 한국이라는 걸 좁은 염두에 두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

주민등록번호 난엔 증로구 라고 쓴분, 생년월일의 영어표기가 月을 앞으로 쓴분, 日을 앞으로 쓴분들, 이렇게 조그마한 잘못된 표시 하나 하나가 업무의 능률을 너무 저하시켰던 것이 아



본회 사무 高 成 아

닌가 되돌아 본다.

그러나 한편 많은 우편물을 접하다 보니 완벽하게 묶여져 곱게 바다건너 온 정다운 서류들을 대할 땐 본인을 대하는 것보다 더 친밀감을 느끼게 되며, 또 몇년만에 외출하신 것 같은 어느 노인의 손주딸의 면허증 갱신을 위해 찾아 오시는 것을 볼 땐 선뜻 그 노인의 목적한바를 대신해드리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였다.

독일에서 오는 편지는 대게가 결봉에 Süd Korea로 表記가 되어 있었다.

南北을 꼭 表記해야만 하는지.....

分斷된 공통점이 있는 나라에서 살기 때문인지는 모르나 이 점은 특히 회원의 재고되어 주기를 바라는 점의 하나이다.

먼 이국땅에서 모든 생소함에 자신을 적응시키며 오늘도 북북히 간호사업에 노고를 아끼지 않을 여러분의 모든 뒷바라지가 잘 이루어 지도록 우리는 이번 면허갱신업무를 통해 더욱 심혈을 기울였으며, 보람을 느낀다.

당초 三月末頃으로 예상했던 新면허증 발급사무는 모든 것이 순조롭게 못해 상당히 늦어질 것같은 보사부의 표정이다. 손뽀아 기다릴 신면허증이 하루속히 발급되어지기를 함께 바라면서 해외에서 직접 협회로 면허갱신 서류들 보내 준 분에게는 신면허증이 발급되는 대로 우송할 예정이니 그동안 변동사항이 있을 시는 반드시 면허번호를 기재하여 협회에 연락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다.

우편물에 실려온  
미비된 서류를 대할때  
안타깝지만